

급격히 진전되고 있는 국제화, 개방화로 인하여 세계 각국은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모든 국가는 첨단기술 개발에 국가의 총체적인 역량을 결집해 나아가고 있다.

기계공업은 첨단기술 제품의 생산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과 품질을 결정하며 한 국가의 경제 수준을 가

지였던 광복 초기부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현재의 공업국으로 부상하기까지 지난 반세기동안 대한기계학회는 우리나라 기계공업에서 생산 현장과 연구소, 그리고 대학의 교육 현장을 연결시키는 중재자의 역할과 전문학회지의 발간, 최신 이론 및 기술을 수록하는 논문집의 발간, 기계관련 설계기준의 제정 및 강습회를 개최하는 등, 최신 첨단기술의 보급은 물론 기초과학기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 지난해 창립 50돌 행사 활발 ... 회원 7천여명 대한기계학회

1945년 9월5일 「조선기계기술협회」로 출범한 대한기계학회는 반세기가 넘는 역사와 함께 7천3백여 회원이 하나가 되어 기계공업 발전을 위한 연구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 창립50돌을 맞은 대한기계학회는 춘추계학술대회를 국제학술대회로 운영하는 등 95년1월부터 96년12월까지 2년에 걸쳐 대규모 기념행사를 펼치고 있다.

### 45년 「조선기계기술협회」로 出帆

〈연혁 및 학회의 구성〉 광복의 기쁨이 온 나라에 넘쳐흐르던 1945년 9월 5일, 대한기계학회는 우리나라 기계산업의 미래를 현명하게 예측한 선각자들에 의하여 ‘조선기계기술협회’로 창립되었으며 초대 회장으로 이채호씨가 취임하였다. 1948년에 ‘대한기계학회’로 이름을 바꾸고 그 이듬해에 규약 및 세칙을 정하였으며 1961년 한국과학기술진흥협회에 가입하고 사회단체로 등록, 1976년에 사단법인으로 인가받아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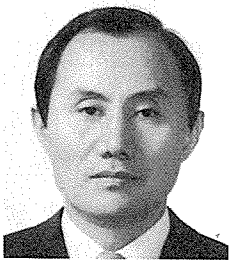
대한기계학회는 1961년 한국과학기술진흥협회에 가입하고 사회단체로 등록하였다. 이후 각 지역에 지부 설치를 활발히 하여 1962년부터 호남지부를 시작으로 1963년에 부산지부, 1964년에 경북지부, 1975년에 울산지부, 1981년에 포항지부, 1984년에 경남지부와 충청지부가 설치되었다.

또한 6개의 학술부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학회의 회무를 총무, 경리, 사업, 편집 이사가 주관하고 있고, 편집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공업교육위원회, ‘상’ 심사위원회, 보일러 및 압력용기위원회 등의 조직이 학회의 회무를 지원

능하게 한다.

기계공업분야는 일반기계, 정밀기계, 수송기계, 전기기계, 조립금속제품 등으로 구성되는 광범위한 산업으로 대표적인 자본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생산기반산업으로써 제조업의 성장 발전과 구조 고도화에 기여하며, 가격보다는 기술, 품질이 중요시되는 산업으로서 단기간 내에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산업이다. 그러나 경쟁력만 갖추면 수출 산업화가 용이하고 후발개도국이 따라오기 힘든 산업으로 반드시 육성해야만 하는 산업이다.

과학기술과 산업에 있어서 거의 불모



李 敎 一  
(대한기계학회회장)

한다.

학술지로는 1948년에 「기계기술」이 창간되었고, 1959년에는 학술지인 「대한기계학회지」가 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1977년부터는 논문들을 모아 발간하는 대한기계학회논문집이, 1987년에는 영문 논문집인 「KSME Journal」이 창간되었다.

대한기계학회는 세계화에도 주력하여 JSME(일본기계학회), CSME(중국기계공학회), PSME(필리핀기계학회), ASME(미국기계학회), SME(미국생산공학회), VDI(독일공학회) 등 외국의 관련학회와 국제협력 관계를 맺었다.

반세기가 넘는 역사 속에서 대한기계학회의 회원은 1996년 8월 현재 정회원 6천7백98명, 학생회원 2백80명, 찬조회원 1백20명, 특별회원 93명, 명예회원 12명을 합하여 총 7천3백3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은 산업계와 학계의 각 부분에서 기계공업 발전을 위한 한 마음 한 뜻으로 매진하고 있다.

### 해마다 봄·가을 학술대회 개최

〈학술활동〉 정규 학술활동은 춘계 및 추계학술대회(Annual Spring & Fall Conference), 부문 학술강연회 및 학술대회(Technical Division Conferences), 기술강습회(Technical Meetings and Continuing Education) 등이 있다.

춘계 및 추계학술대회는 학회가 개최하는 가장 큰 규모의 행사로, 국내외 저명한 과학기술자를 초빙하는 특별강연회와 3백여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되고 1천여명의 관심있는 회원과 비회원이 참가하고 있으며, 기계분야의

현장기술자를 위한 학술강연회, 워크숍과 관련기기 및 도서전시회도 겸하여 춘계학술대회는 지방에서, 추계학술대회는 경인지역에서 총회와 함께 개최된다.

부문 학술강연회 및 학술대회는 기계공학의 각 부문을 재료 및 파괴부문, 고체역학부문, 동역학 및 제어부문, 열 및 유체공학부문, 에너지 및 동력공학부문, 생산 및 설계공학부문의 6개 부문으로 나누어 각 부문마다 연간 1회 이상의 학술강연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기술강습회는 산업체에 종사하는 기계기술인 또는 대학, 연구소의 관심있는 연구자들을 위하여 국내외 과학자를 초빙하여 신기술,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2, 3회 개최된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세미나, 좌담회, 심포지엄, 워크숍, 공장견학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회원들의 지속적인 연구 교류를 도모하고 산학연 협동을 위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또한 본 학회에서는 매년 학술, 기술 두부문으로 대한기계학회상을 수여하고 백봉기술상, 백암기술상, 남헌기술상 등의 여러 시상을 통하여 공로표창 및 연구 장려를 수행한다.

〈학회지 발간〉 1959년에 창간된 대한기계학회지(Journal of KSME)는 원래는 논설, 전망, 해설 등의 여러 투고자료와 연구 논문을 포함하여 발간하였으나, 1977년부터 논문을 분리하여 논문집을 별도로 발행하고 있다.

대한기계학회지에서는 기계공학 및 공업에 관한 최근의 발전상을 상세하게 기술하거나, 진보를 토대로 한 장래의 예상, 필요 등을 자료에 의거, 공정한 입장에서 기술한 것, 그리고

여러 학문체제가 확립된 기계공학의 기초 원리 및 자료, 현황 등을 수록하고 월간으로 연 12회 발행된다.

1977년에 창간된 대한기계학회논문집(Transactions of the KSME)은 기계공학 및 기술적 가치가 있는 독창성과 신뢰성이 있는 '논문'과 응용에 중점을 둔 '기술 논문'을 게재하며 월간으로 발행된다.

기계공학 및 기술적 기여가 있는 것으로 독창성과 신뢰성이 있어야 하며, 타 잡지에 발표되지 않은 내용의 영문논문을 실는 KSME Journal은 계간으로 연 4회 발행되며 1995년부터 ISI(Institute for Science Information)의 SCI(Science Citation Index)에 등록 승인을 받아, 세계수준의 저명 논문집으로 인정을 받았다.

〈기타 발간사업〉 대한기계학회에서는 기계분야의 통일된 용어집으로 총어휘 1만8천여 전문용어를 총망라한 「기계용어집(Thesaurus on Mechanical Engineering)」의 발간을 통하여 기계공학분야에서의 용어를 검토하고 표준화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또한 실용설계시리즈(Design Handbooks)들과 여러 가지 기술지도보고서 및 각종 설계기준 등을 편찬하여 기계공학분야의 연구 활동을 꽃피우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교육위 설치, 산업계 기술지도

〈산학협동 및 교육활동〉 대한기계학회에서는 산학협동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특별회원사, 기계관련 산업체의 요청에 따라 한국산업규격을 제정 및 개정하고, 산업체의 애로기술에 대한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한 기

기술자의 양성을 위하여 공업교육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대학 기계공학계열과의 교육과정을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기계공학 교육발전을 위한 설문조사, 공개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우리나라 기계공학의 교육방향과 교육과정을 발전적으로 선도하고 있다.

〈국제교류사업〉 기계공학의 학문, 기술분야에서 그 생명력을 고양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기술과 정보의 상호 이전은 물론, 우리를 알리고 그들을 아는 고립 탈피와 함께 세계를 우리의 무대로 하여 무한한 성장을 꾀하는 것이 국제교류사업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기계학회에서는 학회내에 국제협력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고, 해외 우수학회와 학술교류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미 일본기계학회, 자유중국기계공정학회, 필리핀기계학회, 미국생산공학회, 미국기계학

회, 독일기술자협회, 중국기계공정학회 등과 공동 협력을 위한 협정을 맺었으며, 1988년 이후 매 4년마다 한국과 일본에서 교대해 가면서 열공학과 유체공학분야의 합동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개최되는 기계관련 학술회의를 적극 후원하고 있다. 다음 표는 최근 학회에서 후원 또는 주관하는 국제행사를 정리한 것이다.

### ‘자동차생산기술 학술회의’ 열어

〈창립50주년 기념사업〉 지난해 학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기계학회는 창립 이후 50년간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학회사업 세계화의 원년이 되는 행사를 1995년 1월 1일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의 2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다.

사업내용으로는 춘·추계학술대회를 국제학술대회로 운영하며 산·학·

연·관 간담회와 창립50주년 기념 출판물 발간, 체육대회를 진행하고 The 4th International Congress of Mechanical Engineering Societies에 참석하고 '96 Asian Pacific Conference for Fracture and Strength와 The 3rd KSME-JSME Thermal Engineering Conference 등의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세계는 지구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혁명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룩하고 찬란한 문명과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수차의 세계대전 등 대량살상을 겪었고 최근에는 무역전쟁과 기술전쟁으로, 또한 자원의 고갈, 자연파괴와 공해로 일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향후의 기계기술은 자연, 환경에의 적응/보존 및 인간의 복지증진을 추구하는 기계기술, 인간의 지능과 생체의 기능을 추구하는 기계기술, 생산성, 정밀도와 극한 기능을 추구하는 기계기술의 방향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한기계학회는 산·학·연을 망라한 기계기술인의 명실상부한 중심점 역할을 성실하게 담당하며, 학회의 세계화, 정보화를 통하여 21세기의 새로운 기계공업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금년에는 한국정밀공학회와 대한기계학회가 자동차생산기술에 관한 학술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더 학회간의 공동 활동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학회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전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외국 학회와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㉞

| 행 사 명  | 개최일시·장소                            | 비 고 |
|--|------------------------------------|-----|
| Third KSME-JSME Thermal Engineering Conference                                       | 1996. 10. 20~23<br>경주 힐튼호텔         | 주관  |
| Pacific Conference on Manufacturing '96 (PCM '96)                                    | 1996. 10. 29~31<br>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     | 후원  |
| International Session on Dynamics, Systems and Design ('96 KSME Fall Annual Meeting) | 1996. 10. 31~11.2<br>인하대학교         | 주관  |
| The 1st Pacific Symposium on Flow Visualization and Image Processing                 | 1997. 2. 23~26<br>Hawaii, Honolulu | 후원  |
| The 5th Asia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luid Machinery                            | 1997. 10. 6~8<br>서울                | 주관  |
|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iquid Atomization and Spray Systems                 | 1997. 8. 18~23<br>서울               | 후원  |
| 7th Asia-Pacific Vibration Conference  | 1997. 11<br>경주                     | 주관  |
| The 10th International Heat Transfer Conference                                      | 1998. 8. 23~28<br>서울               | 주관  |